

노인의 재혼연구

A Study on the elderly remarriage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서병숙
박사과정 김혜경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Seo Byong Sook

Hyei Kyung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Researches found that the attitude of adult married childre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the elderly remarriag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lderly remarri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Sex was found to be influential to elderly remarriage. Males were more positive than females. The degree of sex-stereotyping and supporting experience of the elderly parents were found to influence on children's perception. Adult children positively perceived elderly remarriage as giving emotional satisfaction, mutual-dependence, and liveliness or freedom of later life. Meanwhile, they negatively considered elderly remarriage, mainly because of traditional public attitudes toward remarriage, difficulties of adaptation with step-families, and financial or legal conflicts. Adult children regarded health, character, financial independence, and children's agreement level as the most considerate factors, whereas the elderly the adaptation among step-family members, marital adaptation, and public attitudes toward their remarriage.

I. 서론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및 사망률의 저하는 노인인구비율을 증가시키고(1996년 통계; 8.6%, 60세 이상), 이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노인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급속한 현대화와 산업화, 이에 따른 도시화의 과정을 겪은 우리사회는 사회전반적으로 서구적인 사고가치로 전환하고 있음에 비해, 개인적인 가치와 생활양식은 전통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인 가치와 생활양식을 따름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경노사상과 효사상에 근거하여, 가정과 사회의 중심인물로서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었던 과거 전통사회의 노인의 지위는 현대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주변인(Marginal Man)"의 지위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지난날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여 소외된 삶을 보내며, 자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양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다소 번거로운 복지의 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노인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관점과 가족원의 갈등에 관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부양을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정서적, 사회적 만족과 심리적 복지를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노인재혼에 관한 연구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생활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보건의 개선은 건강한 노인들을 증가시키고, 자녀 수의 감소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중년기 이후 가족축소기가 연장되었으며, 이는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및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기에도 부부중심의 생활을 기초로 하는 노인자립적인 부양체계를 가지는 '노년기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5년 현재 전체 노인의 40%가 노부부 혹은 독신노인으로 구성된 단독가구이며, 노

인들의 자녀와의 별거 희망률은 계속 증가하여 46.4%가 노부부만의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최순남, 1995; 박충선, 1996). 위와 같이 노년기의 연장과 노인과 젊은세대의 부양의식의 변화는 노후 복지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재혼을 긍정적인 각도로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들은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노년기의 재혼은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노년기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서병숙·김은진, 1996).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의 남자노인의 유배우율이 82.6%에 이르고 있음은 남자노인의 경우, 적극적인 노인재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김명숙, 1995). 한편, 노인의 전화 및 노인 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재혼과 이성교제에 관한 상담 및 문의이며(조기동, 1993; 창원 노인의 전화, 1997), 최근 대전 노인의 전화 주최 노인 쌍쌍 파티에는 표를 사지 못한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호황을 누리는 것을 보면, 현대 우리나라의 건강한 노인들의 재혼 및 이성교제에 대한 새로운 풍속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의 재혼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개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와 경제적인 자립여건의 열악함, 재산과 그 밖의 새로운 혼인으로 일어나는 관계상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의외로 낮은 동의수준과 보수적 견해가 주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서병숙·김은진, 1996). 재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대체로 재혼으로 인해 만족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자녀의 동의수준이 높을수록 더 만족한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노인재혼에 대한 자녀세대의 태도와 관심은 노인 재혼의 성공과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고 노년기에 접어들어, -과거의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과거보다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건강한 '신세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녀들의 새로

은 부양의식 및 대안적인 행동의 하나로서 노인의 재혼을 인식하고, 노인재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혼 자녀 세대의 노인의 재혼에 대한 실제적인 태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재혼을 원하는 노인들과 혹은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원에게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우며, 안정된 노후의 삶의 한 방편으로서의 노인재혼을 준비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 재혼의 의의

노년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홀로된 노인들의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노년기의 재혼은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년기의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나 개념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재혼은 현재 홀로된 남자나 여자가 다시 결혼 생활을 회복하여 유지시키는 것(서병숙, 1995)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때, 노년기의 재혼은 홀로된 노인들이 자신의 여생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와 자녀들의 동의하에 다시 결혼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혜신, 1996).

노년기는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의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 중 자녀의 출가, 친구의 사망, 은퇴, 더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상실은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이다(김성순, 1984). 따라서 홀로된 노인들에게 있어서 재혼은 고독한 세계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며, 잃어버린 인간관계, 혹은 친밀감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재간, 1984; 김은진, 1995).

많은 연구들(고승덕, 1996; 김태현, 1981; 김명자, 1982; Larson, 1978; Shanass, 1976; Blazar, 1987; Thompson, 1984)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녀 노인들이 홀로 있는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이 좋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한편 Kinsey 보고서를 비롯한 최근 국내외의 연구들은 노인기에도 성욕구는 지속됨을 밝힘으로(이윤숙, 1990; 장인협, 1987) 노인 재혼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가족축소기 이후의 노년기 부부만의 핵가족기가 길어지는 가족주기상의 변화와 전체 노인 가구 중에서 노부부단독가구와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38.5%(시부; 28.7/ 군부; 52.7%, 이가옥, 1994)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현대 우리사회가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가족의 핵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순남, 1996; 이혜원, 1997). 이는 노인과 자녀세대의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현대의 노인들은 노후에도 경제적인 자립력과 건강이 허락하면, 자기부양체제하에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위와 같은 제반 현상은 홀로된 노인의 삶의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재혼의 의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와 재혼 만족도

만 60세 이상의 노인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가옥 외의 조사연구(1994)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33% 이상이 노후의 재혼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남자 노인, 연령이 낮은 노인, 도시지역의 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인 경우 상대적으로 재혼에 더욱 찬성하였다. 서병숙·김은진(1996)의 연구는 홀로된 노인들은 비교적 높은 재혼희망도를 갖고,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노인들도 재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전혼만족도가 높고, 학력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고, 외로움의 정도가 클수록 재혼희망도가 높아 재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Spanier와 Glick(1986)은 사별보다 이혼의 경우가 재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이는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며, 전혼만족도가 낮을 때 재혼의 필요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어(성균관대 가정관리학과, 1994), 전혼만족도와 재혼희망도와와의 관계는 일

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없어 앞으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재혼한 노인들의 재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Vinick의 연구(1978)에서는 80% 이상이, Mckain의 연구에서는(1972) 75% 이상이 자신들의 재혼이 성공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재혼 만족도가 클수록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Coleman & Ganong, 1990).

3. 노인 재혼의 안정성과 성공요인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인들의 재혼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조기동, 1993). 연구자들은(이윤숙, 1990; 김은진, 서병숙, 1996; Mckain, 1972) 재혼의 방해요인으로 ① 노인 자신의 낮은 도덕관, ② 자식들의 반대, ③ 경제적인 비자립성, ④ 사회의 규범을 들고 있다. 한편, 성공적인 노년기 재혼의 요인으로는 ① 재혼전부터의 상호교제가 있고, ② 자녀와 친구들의 지지와 동의수준이 높으며, ③ 경제적인 자립도가 크고, ④ 은퇴와 노화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들었다(한혜신, 1996; Moss & Moss, 1980; 정문자, 1996).

노인 재혼이 초혼과 다른 특징 중의 중요한 것으로 노인의 재혼에는 성장한 전배우자와의 자녀들이 개입된다는 것인데, 특히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동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년기 재혼의 경우, 자녀들의 문제가 재혼 후 가족의 적응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노년기 재혼의 경우 노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가족의 인정에 관계된다고 하겠다. '자식들의 반대' 하는 경우, 자녀들의 입장은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 혹은 재산이 있는 노인인 경우 유산과 상속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조기동, 1993; 정문자, 1996).

그러나 실제로 기혼 자녀는 노인의 부양 주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 재혼의 만족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 자녀세대가 홀로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한 대안으로서 노인의 재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기혼 자녀세대의 관점으로서의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즉, 노인 재혼에 대한 노인세대의 긍정적인 태도 및 재혼관에 비하여, (1) 중년기 기혼자녀가 노인재혼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태도는 무엇이며, (2) 이는 자녀 세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인 지위, 형제순위)과 사회심리적 요인(결혼만족도, 부양에의 실제적인 경험 유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3) 한편 이들이 노인재혼을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며, 한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4) 마지막으로 노인재혼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태도와 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노인재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혼자녀들과 재혼을 생각하는 노인들에게 세대간의 절충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노인의 재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기혼 자녀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자녀세대는 노인재혼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기혼자녀세대의 특징은 노인재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자녀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지위)은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기혼 자녀의 심리적 특성(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계적 특성(노인부양의 실제적인 경험, 본인의 결혼만족도)은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기혼자녀세대가 노인재혼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는 자녀세대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기혼자녀의 노인의 재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노인 세대의 노인 재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조사 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정보, 성역할 고정관념적도, 본인의 결혼 만족도를 묻기위한 결혼 만족도로 구성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중 아내와 남편의 엄격한 역할 분리를 동조하는 내용으로 ① 문항1: 남자는 사회에서의 성공이 가정에서의 성공보다 중요하다(여자는 결혼을 잘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② 문항2: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고,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③ 문항3: 부부간의 성생활은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 ④ 문항4: 사내대장부는 희생과 인내)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7405$ 였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의 측정은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박찬미(1985)의 척도를 참고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다음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7639$ 였다.

3) 김은진(1995)의 노인재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① 노인의 재혼이 노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질문 5문항(노년기의 삶의 활기와 의욕/ 자녀의 부양부담 경감/ 독립된 삶/ 노인의 자립적인 부양욕구만족/ 정서적인 만족과 의지)과 ② 노인 재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6문항(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감정/ 주변의 시선과 이목/ 새로운 의붓관계의 어색함/ 재산상,법적인 어려움/ 노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 여성노인의 경우 재혼의 불이익성), ③ 노인의 재혼시 고려해야할 점 7문항(건강/ 경제력/ 성격/ 전혼자녀의 수/ 자녀들의 동의수준/ 종교/ 홀로된 이유)등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4) 노부모의 부양경험은 “당신이 부모님을 부양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적어도 1명 이상의 생존한 친 부모가 있는 기혼 남녀로서 경상남도 C시에 거주하는 50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서울과 경상남도 C시에 거주하는 남자 153명, 여자 124명이 1996년 12월 1일에서 15일에 걸쳐 추출되었다. 조사방법은 K 복지관 여성대학과 Y 주부대학 수강자, N 교회 교인, K 기업 사원, T 기업 사원, 서울 M 기업 사원, 그 밖의 개인사업자들과 아파트 단지 내의 반사회를 통해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총 27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심리적, 관계적인 요인에 따른 차

이를 보기 위해서는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노인재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별로 보면, 적어도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 기혼자녀로서, 24세에서 59세까지이며, 과반수 이상이 30에서 40대 초반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남(77.5%), 여(57.6%)가 대졸이상이며, 51.2%가 자신을 경제적인 면으로 보아 중상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도시 중산층가정에 속한 특성을 보인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징으로 남녀 모두 80% 이상 중상정도의 결혼만족도를 갖고, 비갈등적, 긍정적 노부모부양의 경험을 보이고 있음을 보아, 평소에 부부관계나 노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연구문제 1> 기혼 자녀는 노인재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노인의 재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본 연구의 기혼자녀들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의 재혼이 자녀나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노인 혼자서 결과와 관심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임을 감안할 때, 문항 2의 '노인 자신이 원하시면 다소 긍정적인 고려...'는 사실 소극적인 태도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재혼을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고 권하고 싶지않다는 응답(10.0%)에 비해 본인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응답이(41.9%) 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여성(124명)		남성(153명)		
	빈도	%	빈도	%	
연 령	30세 이하	19	15.3	30	19.6
	31 - 40	69	55.7	89	63.0
	41세 이상	36	29.0	16	17.4
출생순위	첫째	50	41.1	58	38.4
	둘째이하	74	58.9	95	61.6
학 령	중·고졸이하	50	42.4	34	22.5
	대학졸업	55	46.6	101	66.9
	대학원이상	19	11.0	18	10.6
종 교	기독교	59	47.6	57	37.5
	불교	20	16.1	29	19.1
	무교	45	46.3	67	43.4
S E S ²⁾	상	5	4.0	6	3.9
	중상	62	50.0	68	44.4
	중하	53	42.7	68	44.4
	하	4	3.2	11	7.2
직 업	생산노동직 ¹⁾	67	54.5	20	13.2
	자유업	16	13.0	20	13.2
	사무직	9	7.3	81	53.3
	전문관리직	14	11.4	24	15.7
	기타	17	13.8	8	4.6
결혼만족도 ³⁾	상	37	33.0	45	27.8
	중	64	53.3	87	59.5
	하	21	17.2	14	9.6
성고정관념	상	25	20.4	19	12.4
	중	51	41.9	87	64.1
	하	46	37.7	47	30.7
부양 경험 ⁴⁾	갈등적	20	19.2	22	15.6
	비갈등적	42	40.4	47	33.3
	긍정적	42	40.4	72	47.1

주: 1)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임

2) SES는 응답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3) 결혼만족도와 성고정관념은 5점 Likert 척도로 된 4개의 문항의 합을 10점 이하, 11점에서 15점 사이, 16점이상으로 나누었다.

4) 부양경험은 5점 Likert 척도 중 갈등적과 대체로 갈등적 문항은 갈등적으로, 대체로 긍정적 문항은 비갈등적으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문항은 긍정적으로 나누었다.

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기혼 자녀는 노인의 재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기혼 자녀의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

문항	빈도	%
불필요하고, 권하고 싶지 않다	10	3.6
노인 자신이 원하시면, 고려해 봐야 하지만 번거롭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18	6.5
노인 자신이 원하시면, 다소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133	48.0
노인 자신이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바람직한 일이다	87	31.4
자녀된 도리로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	29	10.5
평균=3.38/SD=.89		

3. 〈연구문제 2〉 기혼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특성은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자녀세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정도)은 노인재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표 3〉은 자녀세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재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

〈표 3〉 기혼 자녀의 노인재혼에 대한 일반적태도

		M	t
성별	남성	8.04	-2.27 *
	여성	7.64	
출생순위	첫째	7.94	.69
	둘째이하	7.74	
종교	있다	7.77	-1.48
	없다	8.02	

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출생순위와 종교는 일반적인 재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았다.

〈표 4〉는 노인재혼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교육정도를 교육받은 해수, 그리고 응답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기 평가에 대한 5점 Likert척도로 표시하였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혼자녀의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재혼에 대한 태도	
	b	β
연령	-.0184	-.0750
교육정도	.0720	.1367*
사회경제적지위	-.0034	-.0019
Adjusted R = .1380 F = 2.659*** D - W test = 1.900		

* p < 0.05 ** p < 0.01 *** p < 0.001

따라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중에서 노인의 재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과 교육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2〉 기혼 성인자녀의 심리적 특성(성역할 고정관념, 결혼만족도)과 관계적 특성(부양의 경험)은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세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노인과의 관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결혼만족도, 성역할 고정관념은 5점 Likert로 된 각각 4개의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수치로, 부양의 경험은 5점 Likert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며,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사회심리학적, 관계적 변인에 따른 재혼에 대한 태도

	b	β
결혼만족도	.0034	.2755
성고정관념	.4433	.0001**
부양경험	.2808	.1931*
Adjusted R = .3894 F = 2.659*** D-W test = 1.90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에서 보면, 성고정관념은 교육, 연령, 성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의 경우, 30대 미만과 31-40세 사이; 41세 이상의 세 집단간의 평균을 일원분산한 결과, 최연소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하의 집단에 비해 고정관념이 낮았고(p < 0.05), 부양경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즉,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고정관념이 더 강했다. 이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사회적 지위와 연령이 성인자녀의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시말하면, 자녀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교육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재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신뢰와 만족감을 주로 나타내는 4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는데, 결혼만족도는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중산층 도시 부부로서,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부양경험이 자녀들의 노인재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양경험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의재혼에 긍정적이었다. 한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출생순위, 교육의 정도는 이들의 노인과의 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양경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순위와 교육정도, 그리고 성별은 직접적으로 부양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한편 간접적으로 자녀들의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6〉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

		성 별		출생순위		연 령			교 육		
		남	여	첫째	둘째이하	상	중	하	상	중	하
결혼만족도	M	14.09	13.55	13.34	14.29	13.60	13.92	13.55	14.55	13.28	13.74
	t,F	-1.36		-1.60		.5507			1.65		
성역할 고정관념	M	11.91	10.92	11.63	11.37	2.957	2.953	2.472	10.17	11.17	11.59
	t,F	-2.18**		.58					3.81*		
부양경험	M	3.47	3.28	3.23	3.50	3.366	3.405	3.135	3.40	3.41	3.81
	t,F	-1.55*		-2.08*		0.763			2.909*		

** Significant level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부양경험이 기혼자녀의 노인재혼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4. <연구문제 3> 기혼자녀세대가 노인재혼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이는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1> 노인 재혼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본 연구의 기혼자녀들이 노인 재혼에 대해 갖는 긍정적 인식을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노인재혼은 노년기 삶의 활기와 의욕을 주며(M=3.76), 정서적 만족과 의지(M=3.70), 독립된 삶과 자유(M=3.30), 노인의 자립적인 부양욕구를 만족(M=3.16)의 순서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M=2.89).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자의 SES, 연령, 종교에 따라서는 각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노인 재혼을 정서적 만족과 의지, 삶의 의욕을 고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 및 신체적 부양에 따르는 수고를 하기 어려운 여건(예; 전문직업의 맞벌이 부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등)에 있는 기혼자녀는 노년기 재혼이 노인의 정서적 안녕과 자신들의 부양에의 의무를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노인재혼을 정서적 안녕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부중심의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3-2> 노인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인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혹은 노인재혼에 걸림이 되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표 8>에서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는 ① 주변의 이목과 시선, ② 새로운

<표 7> 노인 재혼의 긍정적인 인식에 관한 기혼 자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이유		성 별		S E S			출생순위		연 령		종 교	
		남	여	상	중	하	첫째	둘째이하	35세미만	35세이상	유	무
정서적 만족과 의지	M	3.78	3.63	2.81	3.68	3.90	3.84	3.61	3.86	3.60	3.68	3.76
	t, F	-1.32		-7.41***			-1.23		-2.21*		-.64	
삶의 활기와 의욕	M	3.81	3.71	3.18	3.74	3.89	3.84	3.77	3.86	3.69	3.76	3.79
	t, F	-.88		-3.38*			-.39		1.49		-.21	
자녀의 부양 부담경감	M	2.90	2.87	2.90	3.06	2.76	2.72	2.90	2.82	2.94	2.98	2.76
	t, F	-.19		2.93*			.97		-1.07		1.84*	
독립된 삶과 자유	M	3.36	3.22	2.90	3.30	3.32	3.13	3.32	3.26	3.33	3.31	3.27
	t, F	-1.29		1.01			1.14		-.62		.33	
자립적인 부양욕구 만족	M	3.24	3.09	3.00	3.13	3.23	3.11	3.13	3.10	3.23	3.19	3.14
	t, F	-1.23		.497			.13		-1.11		.43	

Significant level * p<0.05 ** p<0.01 *** p<0.001

의붓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③ 여성노인의 경우 오히려 재혼이 삶을 더 어렵게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노인재혼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관계상의 갈등에 대한 주된 우려를 나타내었다. 재혼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성별, 출생순위, 연령과 종교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즉, 여성보다 남성들이 노인의 재혼에 대한 감정적인 부적응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며, 여성들은 노인재혼이 노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여성노인의 경우 삶이 번거로워진다는 견해가 강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주변의 이목을 더 의식하였다.

령,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혹은 중하인 집단은 상위집단에 비해 성격을 중시했다. 성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재혼시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많은 집단이 성격을 중시하였다. 한편,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은 당연히 종교를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라고 인식하고, 전혼자녀의 수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표 9).

한편, <표 10>은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과 재혼시 고려할 점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표 8> 노인재혼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이유		성 별		출생순위		연 령		종 교	
		남	여	첫째	둘째이하	35세이상	35세미만	유	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	M	3.05	2.50	2.94	2.94	2.96	2.71	2.77	2.86
	t	-3.19**		.02		1.41		-.46	
주변의 이목과 시선	M	2.72	2.67	2.75	2.88	2.72	2.69	2.83	2.52
	t	-.34		.68		.19		2.04*	
새로운 의붓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	M	3.09	3.11	3.00	3.16	3.21	3.03	3.13	3.06
	t	.15		.82		1.27		.49	
재산, 법적 갈등	M	2.76	2.97	2.61	2.96	2.82	2.87	2.87	2.82
	t	1.39		1.62		-.35		.34	
부모로서의 존경, 사랑의 상실	M	2.55	2.84	2.72	2.84	2.50	2.79	2.67	2.67
	t	2.05*		.57		-2.02*		.00	
여성노인의 경우 삶의 번거로움	M	2.88	3.22	2.86	3.33	2.88	3.12	3.09	2.93
	t	2.36**		2.03*		-1.62		1.03	

significant level * p < 0.05 ** p < 0.01 *** p < 0.001

<연구문제 3-3> 노인재혼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기혼자녀의 인식

노인의 재혼을 전제로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7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기혼자녀들은 노인의 ① 건강, ② 성격, ③ 경제력, ④ 자녀들의 동의수준, ⑤ 전혼 자녀들의 수 등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 SES, 성고정관념의 정도, 연

노인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의붓부모-자녀관계의 인간관계, 주위의 시선, 노인의 부모로서의 존경심 상실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P < 0.01, P < 0.001),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녀일수록 노인 재혼은 자녀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

〈표 9〉 노인재혼시의 고려할 사항에 대한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

재혼 시 고려 해야할 사항들		성 별		SES			성고정관념		연 령		종 교	
		남	여	상	중	하	높음	낮음	35세이상	35세미만	유	무
건강상태	M	4.00	3.90	.849	.900	.975	3.87	4.06	4.01	3.88	3.92	4.00
	t,F	-.84		2.39*			2.88		1.50		-.77	
경제력	M	3.64	3.58	3.20	3.66	3.60	3.71	3.53	3.64	3.58	3.59	3.64
	t,F	-.54		1.58			3.33*		.59		-.46	
성격	M	3.95	3.78	3.30	3.95	3.84	3.84	3.93	4.04	3.74	3.88	3.87
	t,F	-1.53		2.97*			.76		2.97**		.11	
전혼자녀의 수	M	2.88	3.04	3.30	2.99	2.89	2.92	3.00	3.07	2.86	3.08	2.77
	t,F	1.28		.83			.47		1.65		2.39**	
자녀들의 동의수준	M	3.60	3.55	3.50	3.62	3.52	3.50	3.67	3.64	3.52	3.62	3.51
	t,F	-.49		.454			2.31		1.08		.98	
종교	M	2.74	3.02	2.70	2.96	2.76	2.77	2.99	2.88	2.86	3.11	2.51
	t,F	1.92*		.967			2.29		.17		4.21***	
홀로된 이유	M	2.71	2.70	2.30	2.72	2.73	2.69	2.72	2.81	2.62	2.82	2.55
	t,F	-.04		.735			.78		1.46		1.89*	

significant level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0〉 자녀의 부정적인식과 재혼시 고려점과의 상관관계

	건강	경제력	성격	전혼자녀수 관계	자녀의 동의수준	종교	홀로된 이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	.003	.020	.135	.040	.171*	.016	.035
주변의 이목과 시선	.086	.044	.100	.210*	.215*	.206*	.033
새로운 의붓관계의 복잡함	.007	.127	.683	.232**	.130	.161	.185*
재산, 법적 갈등	.047	.035	-.014	.166	.100	.280**	.236**
부모로서의 존경심상실	-.009	.014	-.072	.241**	.128	.295**	.154
번거로움증가	-.076	.079	-.033	.134	.134	.240**	.186*

One tailed signif. * p < 0.05, ** p < 0.01, *** p < 0.001

교를 중요시하는 집단일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변의 시선과 이목(P < 0.01), 법률적 갈등(P < 0.001), 노인으로서의 존경의 상실(P < 0.001), 여성노인의 경우 재

혼의 불합리성(P < 0.001) 등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는 종교적인 생활이 노인 재혼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도를 낮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은 더 규범적이고 고정관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흥미있는 것은 노인 재혼으로 인한 재산, 혹은 다른 법적인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홀로된 이유와 새로운 의붓부모-자녀관계를 고려해야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5. <연구문제 4> 기혼자녀의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노인세대의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 성인자녀는 노인 재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매우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이 노인 재혼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고려할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노인들이 노인재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노인을 대상으로한 재혼연구에서, 서병숙·김은진(1996)은 노인들은 노인재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혼희망도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재혼의 긍정적 의미에서의 동기와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한 재혼반대사유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연구의 기혼 자녀의 인식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노인재혼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의의는 두 집단 모두 정서적인 만족과 의지, 동반자적이고, 독자적인 삶에 대한 의지로 평가하고 있었다. 노인세대는 적극적으로 노후의 정서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공통적으로 재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나타나며, 재혼에 따르는 고려할 사항은 부모세대는 인간관계적인 적응과 사회적인 시각을, 자녀세대는 재혼 후 노인들의 생활에 도구적인 필요, 즉, 건강과 경제력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세대는 노인재혼을 노후 부양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노인세대에게는 남은 여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11> 노인재혼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비교

(* 출처 : 서병숙·김은진(1996)의 연구에서 재구성)

	노인의 재혼에 관한 인식*	자녀세대의 노인재혼에 관한 태도
노인재혼의 동기 혹은 의미	1. 외로움 2. 동반자, 보호의 필요성 3. 사랑하기 때문에 4. 경제적인 이유 5. 독립된 가정	1. 삶의 활기와 의욕 2. 정서적 만족과 의지 3. 독립된 삶과 자유 4. 자립적인 욕구 5. 자녀의 부양부담감소
노인재혼의 부정적인 인식	1. 나이가 많다 2. 사회적인 관습과 이복 3. 건강 4. 자녀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1. 주변의 이목과 시선 2. 새로운 의붓부모-자녀관계 3. 여성노인의 경우의 비합리적 4. 재산, 법적 갈등 5.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
재혼시 고려해야할 점 (걱정되는점)	1. 의붓부모자녀관계 2. 새로운 부부관계적응 3. 사회의 관습	1. 건강 2. 성격 3. 경제력 4. 전혼자녀관계 및 자녀의 등의 수준

V. 결론 및 제언

노년기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건강상태와 욕구가 다양해진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노인재혼에 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의 변화도 그 하나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의 재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의식의 변화는 실제생활에서의 관습과 태도상, 실행상의 어려움에 부딪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연구들은 노인의 재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혼 자녀의 역할을 들고 있으나, 이들 기혼 자녀세대-노인재혼의 만족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노부모의 부양의 주체로서 인식되는가 노인재혼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재혼에 대한 기혼 자녀세대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혼자녀세대는 노인재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지만(M=3.78),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세대의 노인재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태도는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재혼에 허용적이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재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과 교육정도, 출생순위, 사회적 지위 변인은 성역할 고정관념, 부양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인은 자녀들의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자녀들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양에의 경험은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긍정적인 부양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재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4) 기혼자녀들은 노인재혼을 정서적인 만족과 의지, 삶의 활기와 자유로운 생활 등의 측면으로 긍정

적으로 평가, 인식하고 있었다

(5) 기혼자녀들은 노인의 재혼을 주변의 이목과 시선, 새로운 의붓부모와의 적응상의 어려움, 재산, 혹은 법적인 갈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인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노인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재혼이 가정에서의 노인의 입지와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후생활을 부부관계이외의 것으로부터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전통적 의미의 부부관계는 여성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함으로 노후의 자유로운 삶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6) 기혼 자녀들은 노인의 재혼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건강, 성격, 경제력, 자녀들의 동의수준을 중요시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종교를 중요시하며, 연령이 많을수록 성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7) 기혼 자녀세대와 노인세대는 노인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서적 만족과 동반자적인 의지와 보살핌을 들었으나, 부정적인 면으로는 노인세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응이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수준의 인식을 강하게 하고, 반면에 자녀세대는 건강과 경제력, 성격, 재혼 후의 갈등 등을 도구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하고 경제력과 삶의 의욕이 많이 남아 있고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현대사회의 '신세대노인'의 만족하고 순기능적인 재혼을 촉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성인 자녀세대의 노인재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가족생활주기와 삶의 패턴이 변화하고, 앞으로 부부중심의 노후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노인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혼 자녀세대의 노인재혼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는 노인의 재혼을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부양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긍정적으로 대

쳐하게 되리라고 사료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혼 자녀의 노후의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고승덕 (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2) 김명자 (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0(3), 46-54.
- 3) 김선옥 (1994), 한국노인의 만족감과 고독감에 관한 연구.
- 4) 김은진 (1995), “홀로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태현 (1995), 노인학. 서울: 교문사.
- 6) 박재간 (1995),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 7) 박찬미 (1985),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박충선 (1996), “독거노인”
- 9) 서병숙 (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5), “노인의 재혼”,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_____ · 김은진 (1996), “홀로된 여성노인의 재혼태도 연구”, 노년학회지 16(2), 53-66.
- 10) 엄혜정 (1990), “중년기와 노년기 남녀성의 노인 부양역의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11) 옥은진 (1990),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12) 이가옥 · 서미경 · 고경환 · 박종돈(1994),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이윤숙 (1990), 노인문제논문, 논설집. 서울: 교
- 학사.
- 14) 이혜원 (1996),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 15) 임춘희 (1994), “재혼가족연구의 사각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2), 93-108.
- 16) 장인협 · 최성재 (1990),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17) 정문자 (199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18) 정희영 (1994), “남자 노인들의 사회적관계와 정서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19) 조기동 (1993), “혼자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노년학, 13(2), 153-162.
- 20) 조옥희 외 (1991),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 21) 최순남 (1996),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 22) 한혜신 (1996), “사별노인의 삶의 대처방안으로서의 재혼: 서울시 노인”, 성신여대 석사논문
- 23) Brubaker, T. H. (1990), “Families in Later Lif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59-981.
- 24) Coleman, M., Ganing, L.H. (1990),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1980”,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 25) Mckain, W. C. (1972), “A New Look at Older Marriages”, The Family Coordinator, 21, 61-69.
- 26) Moss, M & Moss, S. (1980), “The Image of the Deceased Spouse in Remarriage of Elderly Widow”, J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 59-70.
- 27) Spanier, G.B. & Glick, P.C. (1980), “Paths to Remarriages”, J of Divorce, 3, 283-298.
- 28) Vinick, B. H. (1978), “Remarriage in Old Age”, The Family Coordinator, 27, 359-363.